



## 팬심 잡고... 소득 올리고... 올해는 대성공 거뒀다

### 환

경축제 다룬 면모, 성숙한 주민의식이 만들어냈던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방문객들의 찬사와 눈에 띄는 성과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 간 25만여명(전년 대비 23.5% 증가)이 무주반딧불축제장을 다녀갔으며 소득(유료프로그램, 농·특산물, 음식판매 등)은 지난해보다 3억8,000여만원이 증가된 14억6,000여만원을 창출했다.

농·특산물은 축제장에 마련했던 3개의 판매장과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에서 판매한 것을 비롯해 택배 주문까지 총 8억7,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향토음식점과 간식부스, 사랑의 다리 포차에서 음식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3억2,000여만원이다. 또한 반디원정대(신비탐사)와 반디별 찾기, 생태탐험, 주제관, 마을로 가는 축제 등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와 자연, 환경 등을 중심으로 주제 집약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유료 프로그램에서도 2억7,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마을자원을 활용해 폭넓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을의 소득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관광객들과 주민들 모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관광객 김모(58, 대전)씨는 "눕었을 때는 애들 손잡고 오고 지금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보고 있다"며 "마을로 찾아가는 체험도 좋고 해질 녘 샅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상여행렬과 대금소리와 어우러진 낙화놀이 보는 낙도 크다"고 전했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주제 집약적이고 체험위주로 편성한 프로그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우선한 시설로 주목을 받았으며, 5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축제다운 면모로 친환경·체험학습·주민참여·소득축제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10개국 150여 명이 참가해 태권도 시범단의 진수를 보여준 글로벌태권도시범공연과 국악 작곡가 김대성과 42인조 양악관현악단이 함께 무주를 교향곡으로 표현했던 "무주아리랑 음악제"도 이목을 끌었으며, 군민들이 직접 기획·공연한 무주 人 놀이 재능터와 전통놀이 시연을 비롯해 농·특산물 특화거리와 향토음식·간식부스, 주민들이 자처하고 나선 자원봉사도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힘으로 꼽히고 있다.

반딧불축제와 병행한 남대천 물축제도 역시 큰 성공을 이뤘다. 주민들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장 인근 청소와 전문 자원봉사를 도맡아 했으며 읍면 농·특산물 전시장과 마을 식당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 교통정리와 주차를 도왔다. 또한 사진과 시화, 그림 등 각종 전시회와 전통놀이 시연을 통해 반딧불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은 "최우수축제로서 본분을 다하고 대표축제로 도약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던 21회 축제였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으로 축제장 곳곳을 밝혀주셨던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축제장 곳곳에서 쏟아내 주셨던 찬사와 격려, 조인과 바람을 담아 내년축제는 더 알차고 멋지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는 천연기념물 제32호 반딧불이를 소재로 개최되고 있는 환경축제로 2013년부터 5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한국 지방자치 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 코페스타 선정 대한민국 여름축제 선호도 1위, 축제닷컴 선정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2위, 미국 CNNgo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남대천 샅다리)으로 연속 선정되며 환경·체험·소득축제로서의 그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축제기간동안 25만여명 다녀가  
지난해보다 23.5% 늘어

신비탐사, 반디원정대 추가로 '관심사'  
마을로 가는 축제도 관광객들에 각광  
친환경축제로서 잠재력 보여줘

특히 한밤중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찾아 떠났던 신비탐사는 곤충전문가가 동행해 하며 탐사증을 발급한 반디원정대가 추가되면서 8,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모았으며, 낮에도 반딧불이를 보며 3D 환상의 숲을 체험할 수 있었던 반딧불축제 주제관에는 1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과 반딧불축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었던 임마 아빠와 1박 2일 생태탐험(667명)도 인기를 끌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관광객 이모(38)씨는 "애들이 책에서만 보던 반딧불이를 직접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다"며 "신선한 밤공기를 마시며 보는 숲 속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고 전했다.

17개 마을이 함께 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에도 4,022명이 참여해 1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무주지역 곳곳의 매력과 인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 ▶ 남대천 물축제 현장

